

쟁점마다 이견…개헌특위 첫날부터 ‘으르렁’

한국당, 대통령 신년회전 비난…동시투표 반대 재확인

與 “여야 공통약속 지켜야”…국민의당, 靑 주도 선긋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는 1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첫 회의에서부터 여야가 주요 쟁점을 놓고 충돌해 향후 가시밭길 논의 과정을 예고했다.

회의 시작부터 한국당 소속 김재경 특위 위원장은 ‘합의 정신’을 내세우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내용과 주체, 절차에 대한 합의는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며 “개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세력들은 정치적 합의만이 국민적 여망을 담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인사말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시작되기도 않았는데 개헌의 방향과 일정표를 제시했다는 게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안상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개헌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 구조는 차후에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며 “국민의 열망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계산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종석 의원은 “민주와 이후 모든 역대 정부가 실패하고 대통령도 불행한 길을 걸었다”며 “여당 의원들은 야당 시절 ‘대통령

령제’가 문제”라고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태(비례) 의원은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 후 한국당 원내대표단과 헌정특위 위원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는 여야의 공통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박주민 의원은 “한국당은 탄핵 국면에서 신속하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개헌특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은 “개헌에 대해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나. 결과를 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에 있어서 민주당과 원칙적으로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청와대 주도의 개혁에는 선을 그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제대로 된 개헌을 하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 “지난주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개헌, 20대 국회 과제”

정세균 의장 신년 기자회견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밥값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해 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정 의장은 특히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라며 “역사를 돌아보면 시민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졌고,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 또한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내는 미래 지향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고,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 열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며 “지난 연말 국회의장실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2.5%가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장은 “약속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선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여야의 조속한 개헌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선 “가능한 한 국회와 국민과 정부가 함께 단 일안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만약 불가능할 때에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 또한 무라 할 수 없는 대통령의 권한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밥값하는 국회 됩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與, 권력기관 개혁·지방선거 동시개헌 총력전

“시간 끌기 안돼…보수정권 과오 반성해야” 한국당 압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권력기관 개혁과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나섰다. 특히 두 과제에 대해 계속 제동을 걸고 있는 제 1야당 자유한국당을 거세게 압박했다.

이날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가 본격 가동되는 것을 계기로 민주당 ‘투톱’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을 부각했다.

추 대표는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과 관련해 “주권자 위에 군림한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도 “(권력기관 개혁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원칙하에 권력기관의

작동 방식을 민주화해 권력 남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담당하게 될 국회 사법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병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사법개혁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정부의 국정철학, 국정운영 기조를 강조한 것”이라며 “(사법개혁에서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만큼)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 국회의 시대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당의 강한 반발을 의식,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자행된 일탈과 범죄적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었다”(우 원내대표)는 등의

발언으로 이전 보수정권의 과오를 상기시키며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또 민주당은 개헌 드라이브도 이어갔다. 우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1년 동안 활동한 기존 개헌·정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끌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개헌·정개특위를) 개헌 저지용 시간 끌기나 정치개혁 발목잡기용 방해막이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제 1야당(자유한국당)과 제 2야당(국민의당)은 대통령 탄핵 직후(2016년 12월9일)부터 대선 50일 전까지(2017년 3월20일) 보여줬던 조속한 개헌추진 촉구가 공허한 수사였는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UAE 의혹’ 사실상 종료

임종석 실장 4당 원내대표 회동…해명 후 협조 요청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 논란이 사실상 마무리 되는 분위기다. 임 실장이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 특사 문제를 국익 차원에서 판단하자고 합의한 데 이어 지난 14일 저녁에는 나머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자신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구했기 때문이다.

1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실장은 전날 서울 한 식당에서 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오신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임 실장은 “한국과 UAE의 관계가 좋았지만, 작년 11월 알 수 없는 이유로 두 나라 관계가 악화해 특사로 가게 됐다”며 파견을 둘러싼 논란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또 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과거 정부가 맺은 협정 중 일부 문제가 있었고 ▲UAE가 공개를 원치 않으며 ▲헌법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부분은 수정·보완하되 공개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때 원전을 수출하면서 UAE와 긴밀한 관계가 형성됐지만, 박근혜 정부 때 후퇴가 있었다”며 “(이번에) 그것이 복원됐을 뿐만 아니라 UAE가 경제적으로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이 더 확대되길 바라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임 실장이 한국당까지 포함해 여야 5당의 원내대표를 모두 만나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것을 계기로 UAE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사실상 봉합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야권에서는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운영위 소집 요구가 빚발쳤지만 최근 들어 국정 조장은 철회됐고, 한국당은 사실상 운영위 소집 요구도 접은 분위기다.

／임동욱기자 tuim@

“원희룡 잡아라” 제주도 간 유승민

통합 부정적 의견…당 잔류 권유 비공개 면담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탈당을 만류하기 위해 직접 제주도를 찾았다.

유 대표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에서 같은 당 소속 원희룡 지사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유 대표는 원 지사와 면담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등 당의 진로에 대해 설명하면서 당 잔류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정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

해 구성원 간 충분한 공유와 통합 중심의 길만이 분명치 않다고 본다”고 언급하는 등 당 당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가 탈당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원 지사도 경우에 따라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 대표의 제주도행에는 같은 당 소속 정병국 의원이 동행했다. 정 의원은 옛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시절 원 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원조 세신파’로 불렸다.

／김형호기자 khh@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차량 파손 가능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개정안 발의…소방관 면책 강화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주차 차량을 필요할 경우 파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방관의 면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화재참사 당시 화재현장 주변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안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소방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재산피해에서 소방관들의 면책(책임면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긴급 출동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을 이동·제거·파손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만 돼있고 ‘파손’에 관한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화재 진압을 위한 물건 파손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관의 면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형호기자 khh@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26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0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7
	실용음악학과	10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6(토) ~ 1.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일반편입 (3학년)	정 원 외 학사편입 (3학년)	유치원교사 양성 관령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7(수)
 • 전형일 :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 (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17(수)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 학교 로 오십시오!!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1.26(금) ~ 2.2(금)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8. 2. 6(화) 오후 2:30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2018. 2. 6(화) 오후 2:40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8. 2. 6(화)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8. 2. 6(화) 오후 2:40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믿음을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